□특집/신문 · 방송 언어

신문의 기사와 한자(漢字) 문제

陳 泰 夏
(명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Ⅰ. 신문에서 한자 사용은 과연 필요한가?

신문의 글은 어느 나라에서나 전문 지식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것이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므로 신문은 그 나라 국민이면, 문맹자가 아닌 한, 누구도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문체로 기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구나 근래 우리 나라 신문에 보도되는 내용의 경향을 보면, 학술적인 논문성의 글은 거의 볼 수 없고, 대부분 뉴스나 일반적인 교양, 오락, 광고, 등의 보도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어의의 분별을 위하여 한자를 쓸 필요도 없게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당면한 우리 나라 현실 문제에 있어서 중고등학교는 고사하고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문 기사를 제대로 읽지 못하는 사람이 많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신문의 기사를 읽지 못하는 현상은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 나라만의 특수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최고학부를 졸업하고도 신문 기사를 읽지 못하는 문제는 유지자들이 그저 개탄만 할 일이 아니라, 정부당국에서는 시급히 이와 같은 현상의 근본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이 한 해 두 해 거듭되어 누적되었을 때, 그로 인한 결과는 심각

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처럼 나라 문화 발전의 장래를 위하여 중차대한 현실 문제에 대하여 위정당국이나 직접적으로 관계가 되는 언론에서도 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거의 수수방관하고 있음은 더욱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다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신문에서 한글 전용을 하지 않고, 이른바 한자를 혼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신문이 한글만을 쓴다면, 우리 나라 국민으로서 신문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 나라 문맹자의 수는 전체 국민의 5%도 되지 않으며, 그것도 대부분 구세대에 속하기 때문에, 신세대에 속하는 우리 나라 국민은 거의 모두가 한글 전용 신문은 읽을 수 있다는 결론이다.

그렇다면 최고학부를 졸업하고도 신문을 읽지 못하는 기현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든 신문이 즉시 한글 전용하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신문의 역사를 볼 때에, 1896년에 창간되었던 '독립신문'에서 이미 한글 전용을 단행한 일이 있고, 근래에는 '한겨레신문'에서 한글 전용을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한글 전용의 '로동신문'을 발간하고 있으니, 모든 신문이 한글만으로 발간하는 일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문자 정책을 보면, 그 역사성과 현실성을 무시하고, 중학교 과정에서부터 그것도 국어과목으로서가 아니라, 외국어의 일종으로서 '한문' 과목을 교과 과정에 넣어 교육하기 때문에, 초등학교(국민학교) 과정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면, 자신의 이름자도 쓸 수 없고, 신문도 읽지 못하는 기형적인 교육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또한 중학교 이상의 과정을 거쳐도 교과 과정의 한문 시간은 영어나 수학에 비하여 시간 배당이 극히 미미하고, 게다가 입시 위주의 교육방법에 밀리어 소극적으로 교육할 뿐만 아니라, 피교육자 자신들의 학습의욕도 거의 부재한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과정을 거쳐도 신문에 쓰이는 한자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하게 되고, 대학에 들어와서는 전공과목과 외국어 등에 쫓기어 초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이수하지 못한 한자 실력은 그대로 부진한 상태로 이어져, 최고학부를 졸업하고도 신문을 읽지 못하는 현실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우리 나라는 국민의 평등권을 인정하는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초등학교 과정만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하였을 때는 가장 대중적인 일간신문도

해독할 수 없는 불평등의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의무교육 기간이라고 하여도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 마치고 사회에 진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문자 정책으로 인하여 매일의 일간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공문서나 광고문, 표지판, 간판 등을 올바로 해독하지 못하는 반문맹의 불완전한 사회생활을 면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개인의 나태성이나 능력 부족의 책임이 아니라, 오로지 정부당국에서 확고하고도 일관성 있는 백년대계의 문자 정책을 실시하지 못하여 야기된 문제이므로 어디까지나 정부에서 책임져야 하고, 보상해야 할 문제이다.

교육으로서도 국민 지식 수준의 평등을 조절할 수는 없지만, 국민 누구나가 문자 해독의 평등권은 누리도록 하는 것이 민주교육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이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교육 정책으로서 초등학교 과정에서 한자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문자 해독 평등권에 맞추어 일간신문에서도 한글만을 써서, 피해를 보는 국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자 정책 현실하에 우리 나라 대부분 일간신문들이 독자들의 문자 해독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굳이 이른바 '국한문혼용'의 신문을 발간하는 이유를 분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제침략기에 일본의 신문 체제를 모방하여 발간했던 '국한문혼용'의 체제가 약 1세기 동안 굳어져, 편집진이나 독자층 모두가 그 관행을 과감히 탈피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이유의 하나이다.
(2) '어린이신문'이나 '학교신문'과의 수준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분별하려는 외형상의 권위의식에서 '국한문혼용' 체제를 유지하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3) 신문의 제한된 공간의 체제미를 의식하여, 표제와 부제를 최대한으로 압축하여 뽑는 데 있어서는 표의문자인 한자의 사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4) 우리 나라 사람의 성명이 대부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명의 확실성을 밝히기 위하여 한자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5) 독자들의 수준에 맞추어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식보다는 신문 자체의 체제를 갖추려는 제작진의 기성 틀이 앞서기 때문이다.
(6) 신문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의식구조에 있어서 신문은 학술성의 문

화 매체가 아니라, 가장 대중적인 문화로서 구실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려는 의식이 부족한 것도 한자를 확고한 기준도 없이 그야말로 혼용하는 까닭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서는 가장 대중적인 문화매체인 신문에,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배우지도 않는 한자를 신문에 굳이 혼용하여 제 나라 신문도 읽지 못하는 반문맹의 국민층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지금처럼 각 일간신문에서 계속 한자를 혼용하려면, 전국의 신문사가 총단합하여 정부 당국과 결판을 해서라도 즉시 초등학교 과정에서부터 한자를 교육하도록 정책을 단행해야 할 것이다.

신문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현실 문제를 타개하지 않고, 신문사 위주의 상업성 신문만을 발간할 수는 없다. 신문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은 현재 우리 나라의 문자 정책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경에까지 이르렀는가를 깊이 인식하여, 하루속히 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제의하는 바이다.

Ⅱ. 신문에서 한자 사용의 실태는 어떠한가?

오늘날 우리 나라 '국한문혼용'의 일간 신문들을 비교하여 보면, 한자 사용의 기준이나 체제에 있어서 거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국한문혼용'의 신문을 발간하고는 있으나, 한자의 사용 범위와 체제 등의 객관적인 기준이나 필요성 여부의 데이터도 없이 기사 작성자나 표제 선정자 등의 즉흥적이고 수의적인 감각에 의하여 쓰이고 있음이, 어느 신문이나 무작위로 선정하여 조사하여 보아도 곧 알 수 있다.

우리 나라말은 다른 나라말과는 달리 어휘 구조상 특수한 조직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하여야 '국한문혼용'의 필요성과 기준을 알 수 있고, 그 사용 결과의 효용을 더할 수 있다.

우리 나라말을 구체적으로 분석하면, 어휘에 따라 청각적인 어휘와 시각적인 어휘로 분별된다. 예를 들면, '어머니', '사람', '하늘' 등의 어휘는 우리 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귀로 듣는 것으로써 그 어의를 즉시 이해할 수 있으나, '사기', '신수', '점묘' 등은 아무리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귀로 들어서는 그 어의를 알 수 없다. 그러므로 전자를 청각 어휘라할 수 있고, 후자를 시각 어휘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문제는 청각 어휘는 표음문자인 한글로 써 놓아도 그 글자의 뜻을 알 수 있으나, 시각 어휘의 경우는 들리는 대로 표음문자인 한글로 써 놓아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점이다. 그러나 들어서는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어휘도 표의문자인 한자로 써 놓으면, 한자 교육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그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시각 어휘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이다.

시각어휘를 다시 분석하여 보면, 위에 예를 든 '사기'는 "士氣·仕記·四氣·史記·寺基·死期·私記·些技·砂器·邪氣·事記·使氣·社旗·事機·射技·射器·射騎·詞氣·詐欺·肆氣·辭氣" 등과 같이 동음이어(同音異語)가 많아서 표음문자인 한글로 써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점묘(點描)'처럼 평상시 일반적으로 잘 쓰이지 않는 전문성의 용어이기 때문에 본래의 자의대로 한자를 찾아 쓰지 않으면,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도 있다.

국어사전에 실린 어휘의 통계를 참고하면 전체 어휘의 70%가 한자어휘라고 하지만(韓國語文敎育硏究會 편 : "한글과 漢字", 1985.9. p.137) '배추(白菜)', '가지(茄子)', '종지(鍾子)'등의 어휘까지 포함하면, 실로 한자 어휘는 70%도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나 한자 어휘 모두가 시각 어휘는 아니다. 왜냐하면 많은 한자 어휘들이 언중들의 오랜 통용에 의하여, '학교', '국민', '생활' 등과 같이 굳이 한자로 쓰지 않아도 그 뜻을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청각 어휘화(聽覺語彙化)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문 제작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점을 간추려서 강조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은 가장 대중적인 문화 매체의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

둘째, 신문은 우리 나라 국민 누구나가 문맹자가 아닌 한, 모두 해독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야 한다는 것.

셋째, 우리 나라 어휘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각 어휘 중에서 의미 분별이 필요한 어휘만을 한자로 쓰고, 괄호 안에 한글로 자음을 표기해 주는 계도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

그러나 오늘날 발간되고 있는 일간 신문들의 '국한문혼용'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상의 삼 대 요건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즉흥적인 감각에 의하여 발간되고 있음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근래 몇몇 일간 신문의 '국한문혼용' 실태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비교의 객관성을 위하여 동일자(95년 11월 2일) 신문의 1면 기사에 쓰인 한자

만을 추출하여 대조하기로 하였다.

노태우(盧泰愚) 전직 대통령이 수뢰혐의로 우리 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검찰청에 소환된 사건을 보도한 신문 기사이기는 하지만, '盧' 또는 '盧泰愚' 등의 한자가 각 일간신문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朝鮮日報 : 20 회 (盧씨 : 17회, 盧泰愚 : 3회)
東亞日報 : 22 회 (盧씨 : 17회, 盧泰愚 : 3회)
한국일보 : 28 회 (盧씨 : 24회, 盧泰愚 : 4회)
중앙일보 : 28 회 (盧씨 : 25회, 盧泰愚 : 3회)
世界日報 : 21 회 (盧씨 : 17회, 盧泰愚 : 4회)
國民日報 : 26 회 (盧씨 : 20회, 盧泰愚 : 6회)
문화일보 : 20 회 (盧씨 : 16회, 盧泰愚 : 4회)

이 밖에 기사 내용으로서 쓰인 한자어는 각 신문별로 다음과 같다. (기타인의 성명으로 쓰인 한자는 제외함)

朝鮮日報 : 子正, 歷史, 法, 前, 非理, 國策, 名單, 大選, 拘束, 政經, 聖域, 與野, 美, 政街, 拔本塞源, 表紙
東亞日報 : 全經聯, 對, 政經, 訪韓, 성녀(聖女), 자선(慈善)
한국일보 : 大選, 否認, 深夜, 民自, 蓄財
중앙일보 : 賂物, 否認, 憲政, 前職, 社, 業體, 歸家
世界日報 : 憲政史, 前, 歸家, 大, 對, 與圈, 政經, 全經聯, 芝峰 李睟光(지봉 이쉬광), 大科(대과), 丁酉(정유), 芝峰類說(지봉유설), 天主實義(천주실의), 實學(실학)
國民日報 : 韓寶, 社, 大選, 水西, 政黨, 民自
문화일보 : 企業人, 否認, 大選, 蓄財, 與圈, 波高, 統一, 新人類, 全經聯, 對, 政經, 前, 共, 與野

이상 7종 신문에 쓰인 한자어를 분석하여 볼 때, 각 신문에서 '盧씨' 또는 '盧泰愚 전대통령'을 약속이나 한 듯이 매번 한자로 쓰고 있는데, 표제로 한 번만 사용하고, 기사 내용에서는 모두 한글로 써도 어의상 아무런 혼란이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을 매번 한자로 써서 독자들에게 어떤 편

익을 주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신문사로서 인명은 반드시 한자로 쓰는 기준을 세웠다고 하여도 동일 기사내용에서 동일인의 이름을 매번 한자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된다. 체제상으로도 보기 흉하다.

각 신문의 기사 내용 중에서 인명 이외에 쓰인 한자어를 분석하여 보아도 대부분 청각 어휘화한 한자 어휘이기 때문에 그대로 한글로 써도 별로 의미상에 혼란이 일어날 어휘들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자로 쓰지 않으면 어의 분별이 잘 안되는 시각 어휘만을 한자로 써 주는 기준이 없이 신문 체제상 적당히 한자를 뽑아서 배치한 것처럼 보일 뿐이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서 독자들 편에서 좀더 바르고 빠른 해독에 편익을 주겠다고 신문 제작 이전에 치밀하게 기획한 노력의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독자들 편에서 볼 때, 각 신문에서 뽑아 이상에 열거한 예와 같이 한글로 써도 좋을 한자어를 즉흥적으로 한자를 택하여 쓴 것보다는 오히려 다음과 같은 시각 어휘들을 한자로 써 주면, 독자들이 그 의미를 잘 모르면 사전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비자금, 중수부, 묵비권, 기소, 정경유착, 일부사안, 자정의지, 제고, 은닉, 특가법상 뇌물수수, 내사, 연루, 초췌." 등의 시각 어휘는 한자로 써 주는 것이 독자들에게 신문을 통하여 한자어를 올바로 인식하는 계기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생들에게 '비자금'의 뜻을 물어 보았더니 비상자금의 뜻인 '非資金'으로 알고 있는 학생이 적지 않으며, '중수부'의 뜻을 알고 있는 학생은 거의 없었다.

일반 유식층에서도 '중수부'가 '중앙수사부'의 약어로 '中搜部'의 뜻인 줄 모르는 사람이 적지 않다. 심지어 '重囚部'로 오인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처럼 한자어의 약어나 신조어를 한글로 표기하였을 때는 아무리 유식하여도 그 의미를 알기가 어렵다. 이러한 시각 어휘들은 마땅히 한자로 쓰고 그 자음도 괄호 안에 표기해 주어야 한다.

필자가 몇 년 전에 일간 신문의 국한문체 표제 또는 부제를 뽑아 대학생(인문대학 1학년) 300명에게 해독의 수준을 조사해 본 일이 있는데, 참고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뒤바뀐 攻守(한국일보, '91.4. 11. P.20.)

(2) 北사정감안 求償, 換거래 병행(한국일보, '91. 4. 12. P.1.)
(3) 이란, 埃 등 訪韓러시(한국일보, '91. 4.12. P.7.)
(4) 공단 환경淨化樹 보급(한국일보, '91. 4. 12. P.19.)
(5) 非過熱 非凍土 선거 (한국일보, '91. 4. 11. P.2.)
(6) 地自財政 過熱개발도 경계해야(한국일보, '91. 4. 12. P.2.)
(7) 碧玉으로 만들어진 無莖式 石鏃(朝鮮日報, '91.4.12. P.11.)
(8) 物價 등 安定위협요소 尙存(朝鮮日報, '91. 4. 10. P.6.)
(9) 어린이 移徙 스트레스(朝鮮日報, '91. 4. 9. P.13.)
(10) 勞組상대 損賠訴 늘어(朝鮮日報, '91. 4. 9. P.13.)

이상의 10개 표제(부제)를 무작위로 뽑아 시험한 결과 정답자는 1명도 없고, 10문제 중 5문제의 정답자도 30%에 이르지 못하였다.

문제 중 "어린이 移徙 스트레스"에 대한 오답의 예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1) 어른들의 과잉보호로 어린이들의 가출.
(2) 어린이들의 각종 스트레스.
(3) 학교 주변이나 집 근처에서 유행처럼 번지는 유괴범과 돈을 빼앗고 금품을 노리는 불량배들에게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4) 공부하라는 강요, 대학을 위한 공부, 다른 이들과의 비교.
(5) 엄마의 지나친 관심, 자유스러움보다는 억압을 하는 부모, 공부에 시달리는 것.
(6) 어린이들에게 스트레스가 많이 있다.
(7) 어린이들의 접종에 대한 부작용.
(8) 소년들의 옮기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뜻.
(9) 어린이 유괴사건, 당국 스트레스.
(10) 경찰들도 스트레스 쌓인다.
(11) 부모의 지나친 기대로 야기된 어린이들의 스트레스.
(12) 어린이를 너무 받들어 일어나는 스트레스
(13) 어린이 과외 스트레스

(진태하(1991) : "한국 어문의 현실과 지향점", 二重言語學會誌 第8號, 서울, 二重言語學會, PP.491~506 참고)

이상의 실태 조사 결과로써 신문 제작진과 독자층과의 수준이 얼마나 격리되

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최고학부의 대학생들이 해독하지 못하는 신문이라면, 이미 대중성을 상실한 신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신문에 사용하는 한자의 수준이 높아서라기 보다는 오늘날 우리 나라 대학생들의 한자 해독 실력이 지극히 낮은 데에 기인함도 사실이다.

과거에는 각 신문의 사설(社說)이나, 신문에 게재되는 학자들의 학술논쟁의 글들을 스크랩하여 한자의 학습과 더불어 문장 공부도 하였으나, 오늘날 각 신문의 사설을 살펴보아도 모범적인 문장을 찾기가 어렵고, 사설에서도 인명이나 고유 명사 등이나 한자로 쓰고, 별로 지식을 높일 수 있는 한자아니 용이 된 용어를 쓰지 않기 때문에 신문이 학생들의 학습자료의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의 신문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독자들에게도 읽고 스크랩하는 자료로서의 신문이었으나, 오늘날 신문은 대강 보고 즉시 버리는 신문으로 변하였다.

학생들은 이제 한자가 섞인 신문은 보려고도 하지 않고, 대부분 스포츠 신문이나 즉석 구독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각 신문사에서는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대부분의 지면이 한글 전용화하고 있으며, 겨우 정치 사회면에서도 표제나 부제 정도에 극히 제한된 한자가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기사 내용에서는 거의 성명자만이 한자로 쓰여지고 있다.

그러므로 독자들이 신문을 통하여 한자를 익히고, 한자어의 지식을 섭취하기는 어렵게 되었다.

Ⅲ. 신문에 쓰인 한자의 오류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

각 신문사에서 한자 사용을 점점 줄여 가고 있으면서도, 근래 조선일보(朝鮮日報)를 비롯하여 여러 신문에서 시대적인 한자 학습의 필요성에 의하여 한자 학습란을 연재하고 있음은 매우 뜻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신문이 독자들에게 한자 교육의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문자를 익히는 것은 학문연구의 과정이 아니라, 단순 기억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학습할수록 효과가 있으며, 매일 접하는 신문을 통하여 학습하는 것은 반복 학습의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각 신문에서 좀더 효과적으로 한자 학습란(學習欄)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러나 한자 학습란의 잘못된 지식이나 설명은 독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준다는 것을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각 신문에 매일같이 연재되는 한자 학습란의 설명을 읽어보면, 확실한 고증도 없이 어느 한 사람의 편견적인 학설을 인용하거나 망문생의(望文生義)식의 잘못된 풀이를 전 독자에게 주입함으로써 오도되는 지식의 피해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걱정되는 경우도 많다.

신문에 잘못 풀이한 한자의 자원(字源)이나 자획(字劃)의 실례를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이어령(李御寧) 씨가 동아일보(東亞日報)에 "犬자는 개의 모양을 위에서 본 상형문자로……"(1993. 4. 7.)라고 풀이한 것은 잘못이다.

갑골문(甲骨文)에서 '犬'자의 자형은 「𤰔」의 형태로서 개의 모양을 위에서 본 것이 아니라, 옆에서 본 모양을 세워 놓은 상형자이다. 이어령 씨가 '犬'자에 대하여 "위에서 본 상형문자"라고 풀이한 것은 아마도 해서체(楷書體)를 보고 망문생의식으로 풀이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어령 씨가 경향신문(京鄕新聞)에 "원래 선비의 士자는 남성의 상징물을 상형으로 그린 것이다. 여성의 상징물을 나타낸 比와 맞서는 글자이다."(1993. 6. 8)라고 풀이한 것은 잘못이다.

중국의 문자학자 중에도 '士'자를 남자의 성기를 상형한 것이라고 풀이하는 이가 없는 바 아니나, '士'의 자원설이 아직까지는 구구불일하여 남성의 성기 상형설로 단정할 수 없으며, '比'자를 갑골문에서부터 '𠤎'의 형태로 사람이 나란히 견주어 있는 모양을 나타낸 것인데, 여성의 상징물을 상형한 것으로 본 것은 큰 잘못이다.

이규태(李圭泰) 씨가 조선일보(朝鮮日報)에 "……후에 콜레라의 중국 표기인 虎列剌(후리에라)가 도입되어 우리 명칭이 된 것이다……."(1995. 9. 13)라고 설명하였는데, 잘못된 풀이이다.

중국에서는 콜레라(cholera)를 차음 표기하여 '虎列剌' 또는 '虎列拉'으로 써서 '후리에라'로 읽었지, '虎列剌'로 써서 '후리에라'로 읽은 것이 아니다.

'剌'의 자음은 '랄'이고, '剌'의 자음은 '자' 또는 '척'으로서 전연 다른 글자이다. '剌'의 음은 중국음으로 읽어도 '츠'이지 '라'가 되지 않는다.

본래 중국에서 '虎列剌'로 쓴 것인데, 우리 나라에서는 '剌'자를 '剌'자로 오인하여 '虎列剌(호열랄)'을 '虎列剌(호열자)'로 일컫게 된 것이다.(한국국어교육학회 : 국어교육월보, 진태하 : 虎列剌와 虎列剌, 1991, 9. 1 참고)

또한 이규태(李圭泰) 씨가 조선일보의 '李圭泰코너'에서 진시황 때 불로초를 구한다고 삼신산으로 떠났던 신하의 이름을 '徐市'라고 한자로 표기하여 놓고, 괄호 안에 '서시'라고 자음을 붙여 놓은 것은 큰 잘못이다. '市'와 '市'은 전연 다른 글자이다. '市'는 '巾'부 2획에 속하며 '저자 시'이고, '市'은 '巾'부 1획에 속하며 '슬갑 불'이다.

그러므로 "徐市(서시)"가 아니라, "徐市(서불)"이라고 해야 옳다.

이 밖에도 '李圭泰코너'의 한자 풀이에 대한 오류는 일일이 매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을 참고로 밝히는 바이다.

이화여대 중문과의 이재돈(李在敦) 교수가 한국일보에 "……갑골문에서의 秋자 자형은 거북과 같은 동물의 모양을 하고 있었으나 후에 현재 쓰는 秋로 간략하게 변했다.……"("漢字를 찾아서", 74)라고 '秋'자에 대하여 풀이하였으나, 더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다.

갑골문에서 '秋'의 뜻으로 쓰인 ' '등의 자형을 보고, 과거의 중국 문자학자들 중에도 거북이에 속하는 동물로 풀이한 사람이 없는 바 아니었으나, 근래에는 '메뚜기'의 상형으로 풀이하는 것이 타당한 학설로 되어 있다.(陳泰夏 : "漢字는 우리 民族이 만든 契(글)", 書通 42號, 1994. 6. 참고)

고려대의 김언종(金彦鍾) 교수가 중앙일보에서 "형(兄)자는 하늘을 향해 입을 벌리고 소리 치는 모습을 그린 글자로 원래의 뜻은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고유(告由)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 즉 '축(祝)'이다. 이 일은 으레 맏이가 하게 마련이었다."(생활속의 한자 342)라고 '兄'자에 대하여 풀이하였는데, 더 확실한 고증이 필요하다. 갑골문에서 ' (祝)'자와 ' (兄)'자의 자형은 완전히 구별되어 '兄'자가 '祝'의 뜻으로는 쓰이지 않았다.(陳泰夏 : "書藝를 위한 文字學槪說", 書通 45號, 1994. 12. 참고)

동아일보에서 '龜鑑(귀감)'을 풀이하면서 '龜'의 필순을 " → → → → →龜"(MY TV 생활한자, 1995. 7. 26.)와 같이 18획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전연 잘못된 필순이다. '龜'의 필획이 강희자전(康姬字典)의 부수(部首) 색인에는 16획으로 되어 있고, 중문대사전(中文大辭典)에도 16획으로 되어 있고, 대한화사전(大漢和辭典)에도 16획으로 되어 있고, 우리 나라 자전(字典)에도 모두 16획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18획으로 독자들에게 제시하였는지 알 수 없다. 획수만 틀린 것이 아니라, 필순도 옳지 않다.

역시 동아일보에서 '氣絶(기절)'을 풀이하면서 '氣'의 필순을 " → → →→→氣"(MY TV 생활한자, 1995. 7. 27.)와 같이 쓴 것은 잘못이다. '氣'

의 '米'자 필순을 '丷→䒑→半→米'와 같이 써야지. 먼저 '十'자를 써 놓고 넉 점을 찍는 일은 없다.

역시 동아일보에서 '兎死狗烹'을 풀이하면서 '兎'의 필순을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兎'(MY TV 생활한자, 1995. 7. 28)와 같이 9획으로 쓰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전연 잘못이다.

'兎'의 필획이 강희자전에도 '儿(어진사람 인)'부 6획으로 되어 있고, 중문대사전과 대한화사전에도 강희자전과 동일하고, 국내 자전에도 모두 '儿(어진사람 인)'부 6획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에 근거하여 9획으로 썼는지 알 수 없다. 필순도 마땅히 "[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illegible]→免→兎"과 같이 하여 8획으로 써야 한다(陳泰夏 : 東方文字뿌리, 명문교육, 1994.5. 참고).

각 신문에 게재되는 한자의 자원 풀이나 자의(字義) 풀이와 필순 설명에 있어서 너무나 오류가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만 본보기로 들어 본 것이다.

여기서 언급할 것은 이러한 방면의 필자들이 대부분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나 대학의 교수들로서 전문인들이라는 데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일반인들이 심심풀이로 수필식으로 쓰는 글이라면, 독자들도 한 번 읽고 웃어 넘기는 것으로 그치겠지만, 독자들은 전문인들의 깊은 연구에 의하여 쓰여진 글로 생각하여, 완전히 믿고 자신의 지식으로 삼기 때문에 그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에서 실례로 든 한자에 대한 오류들이 전국의 순진한 독자들에게 잘못된 지식으로 심어졌을 때, 누가 무슨 방법으로 올바로 고쳐 줄 수 있을 것인가? 끝내 정정의 기회가 없다면 우리 전 국민에게 오도된 지식에 대하여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러한 오류가 각 일간 신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래 시중에는 우후죽순격으로 한자의 자원풀이에 대한 참고서들이 날로 쏟아져 나와 전국 각 서점에 진열되어 있다.

그러나 문자학에 대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한 풀이가 아니라, 대부분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여 흥미 위주로 풀이하여 놓았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도 부끄러워 차마 묵과할 수 없는 책들이 많다.

여기서 부언할 것은 이러한 사이비 도서에 대하여 교육부 당국에서는 언제까지나 수수방관할 일이 아니라, 전 국민 특히 자라나는 어린 세대들에게 오도되는 지식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조처가 있어야 된다고 제언하는 바이다.

이대로 지나가면, 전국적으로 차세대들의 잘못 알고 있는 한자에 대한 지식은 올바른 국어생활을 하는데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각 일간 신문사에서 사용하는 한자의 활자체가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들로서는 어느 것이 올바른 자획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게다가 일본식 약자와 중국식 약자까지 들어와 뒤섞여 쓰이기 때문에 독자들로서는 더욱 혼란스러움을 면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실례를 몇 가지만 들어 본다.

남자들 이름에 많이 쓰이는 '빛날 희'의 한자가 朝鮮日報와 國民日報에는 '熙', '熙'와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한국일보에는 '熙'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東亞日報와 中央日報에는 '熙'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문화일보, 京鄕新聞, 서울신문에는 '熙'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世界日報에는 '熙', '熙'와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이상의 자형들을 종합하여 보면, '熙, 熙, 熙, 熙, 熙'와 같이 5종의 형태로 분류된다.

이들 자형 중 올바른 것은 문자학적으로 고증하여 보면, '熙'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잘못 쓰는 자형들이다. 지면관계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여자들 이름에 많이 쓰이는 '계집 희'의 한자도 朝鮮日報, 서울신문, 문화일보에는 '姬'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한국일보에는 '姬'와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그러나 문자학적으로 고증하면, 위의 2가지 자형이 다 옳지 않다. '姬'는 '계집 희'의 뜻과는 전연 다른 '삼갈 진'자이고, '姬'는 곧 '姬'의 잘못된 자형이다. '계집 희'자는 '姬'와 같이 '女'부수에 6획으로 써야지, '姬'와 같이 '女'부수에 7획으로 쓰면 옳지 않다.

역시 남자들 이름에 많이 쓰이는 '쇠북 종'자도 東亞日報, 京鄕新聞, 중앙일보, 서울신문, 世界日報, 國民日報, 문화일보 등에는 '鍾'과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朝鮮日報와 한국일보에는 '鍾', '鐘'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문자학적으로 고증하면, '鍾'은 '술잔 종'의 뜻이고, '鐘'은 '쇠북 종'의 뜻으로 전연 다른 글자이다.

그러므로 이름자로 쓸 때는 마땅히 '鐘(쇠북 종)'자를 써야지, '鍾'(술잔 종)자를 쓰면 옳지 않다.

성(姓)으로 쓸 때는 '鐘(쇠북 종)'자가 아니라, 반드시 '鍾'(술잔 종)자를 써야 한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신문에서 정확히 구별하지 않고, 거의 틀리게 쓰고 있는 실정이다.

'저자 시'의 한자는 각 신문에서 거의 모두가 '市'의 자형으로 쓰고 있는데, '巾'(수건 건)부 1획의 '市'의 자형과 같이 쓰면 '저자시'의 뜻이 아니라, '슬갑 불'이라 하여 옷의 명칭으로서, 전연 다른 글자가 된다.

그러므로 '저자 시'의 한자는 마땅히 '巾'부 2획으로 '市'와 같이 써야 한다. 따라서 '허파 폐'의 한자는 '月(肉)' 부수의 4획으로 '肺'와 같이 써야 하는데 5획으로 '肺'와 같이 쓰면 틀린다.

'여권'과 '야권' 등에 쓰이는 '우리 권'의 한자도 朝鮮日報, 한국일보, 서울신문, 國民日報, 世界日報 등에서는 '圈'의 자형과 같이 쓰이고 있고, 문화일보에서는 '圈', '圈'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𢘑'(말 권)은 '卷'의 속자이니, '우리 권'도 마땅히 '圈'과 같이 써야지, '圈'은 옳지 않다.

'너그러울 관'의 한자가 朝鮮日報, 東亞日報, 중앙일보, 世界日報에는 '寬'과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문화일보에는 '寬', '寬'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문자학적으로 고증하면, '宀(집 면)' 부수 아래에 뿔이 가는 산양(山羊)의 형태를 상형한 자형이므로 '초두머리(艹)'의 '寬'과 같이 써서는 안 되고, 반드시 寬과 같이 써야 한다. 또한 점은 산양의 꼬리를 나타낸 자획이기 때문에 반드시 점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각 신문에서 쓰이고 있는 '寬'과 '寬'의 2가지 활자체가 모두 옳지 않다.

'앞 전'의 한자가 朝鮮日報와 한국일보에서는 '前'과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중앙일보, 世界日報, 國民日報 등에서는 '前'과 같은 자형으로 쓰이고 있고, 문화일보에서는 '前', '前'과 같이 2가지 자형으로 쓰이고 있다.

'앞 전'의 뜻을 나타낸 본래의 한자는 '발'을 상형한 '止'자와 '배'를 상형한 '舟'자를 합자한 회의자(會意字)로서 '앞으로 가다'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舟'자를 다른 글자의 자획으로 쓸 때는 약해서 '月'의 형태로 쓴다. 그러므로 '달'을 상형한 '月'(달 월)과, '肉'자를 부수로 쓸 때의 형태인 '月'(육달 월)과의 자형이 전연 다른 것이다.

따라서 '앞 전'의 한자는 '前'의 자형과 같이 써야지, '前'의 자형과 같이 쓰면 옳지 않다.

'비자금'의 '숨길 비'자를 朝鮮日報, 서울신문, 世界日報 등에서는 '秘'의 자형과 같이 쓰고 있고, 중앙일보에서는 '秘', '祕'와 같이 2가지로 쓰고 있는데, '秘'는 '祕'의 속자이다.

오늘날 서로 통해서 쓰이기는 하지만, '秘'는 본래 '향초(香草)'의 뜻이고, '祕'는 '신(神)'의 뜻으로 전연 다른 뜻의 글자이니, 오늘날 '비자금'이나 '비밀'의 '비'자는 마땅히 '祕'자를 써야 한다.

'걸음 보'의 한자를 문화일보에서는 '步'의 자형으로 쓰고 있고, '건널 섭'의 한자를 朝鮮日報에서는 '涉'과 같은 자형으로 쓰고 있고, 한국일보에서는 '涉'과 같은 자형으로 쓰고 있다.

문자학적으로 '걸음 보'의 한자를 고증하여 보면, 본래 두 발의 모양을 상형하여 '𣥂'와 같이 썼던 것인데, 해서체의 '步'와 같이 변형된 것이다. 다시 말해서 '步'자는 '止'자와 '少'자의 합체자가 아니므로 '步'와 같이 써야지, '步'와 같이 쓰면 옳지 않다.

따라서 '건널 섭'의 한자도 '涉'과 같이 써야지, '涉'과 같이 쓰면 옳지 않다.

참고로 부언하면, 일본의 활자체에서는 오히려 '步'의 형태로 쓰는 것을 표준자형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부 신문사에서는 일본의 활자체를 모방하여 쓰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넓을 호'의 한자를 東亞日報, 國民日報에서는 '浩'의 자형과 같이 쓰고 있고, 한국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등에서는 '浩'의 자형과 같이 쓰고 있다.

우선 문자학적으로 '고할 고'의 한자를 고증하여 보면, 금문(金文)이나 소전(小篆)의 자형이 '牛'자와 '口'의 합체자로 되어 있으므로 '告'와 같이 써서는 안 되고, 마땅히 '𠯿'와 같이 써야 한다.

따라서 '넓을 호'의 한자도 '浩'의 자형과 같이 써야지, '浩'의 자형과 같이 써서는 옳지 않다.

문화일보에서 '집 사'의 한자를 '舍'(95.11.8. P.21)의 자형과 같이 쓰고 있음은 옳지 않다.

'집 사'의 한자는 본래 집의 옆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지만, 현재는 자전에서 '舌'(혀 설) 부수에 소속시키고 있으므로, 마땅히 '人'자와 '舌'자의 합체자인 '舍'의 형태로 써야 한다.

따라서 '舍'나 '舍'의 자형도 '舍'의 속체이다. 문화일보의 '舍'의 자형은 완전히 잘못된 자형이다.

한국일보에서는 '이룰 성'의 한자를 '成'과 같이 '戈'(창 과) 부수의 2획으로 쓰고 있는데, 마땅히 '丁'자를 써서 '成'의 형태로 써야 한다.

이 밖에도 많은 활자체들이 신문사마다 다를 뿐만 아니라, 잘못된 활자체도 많이 있으나 지면 관계로 생략한다.

위에 든 예와 같이 한 글자가 신문사에 따라 다르고, 같은 신문에서도 몇 종의 이체자(異體字)가 있으므로 독자들은 어느 것이 올바른 자형인지 알기가 어렵다. 또한 어느 한 신문의 자형을 취하여 자신의 서체에 대한 지식이 되었을 때, 운이 나빠서 틀린 것을 택하였을 때는 일생 잘못된 자형을 쓰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요즘 학생들이 한자로 주소를 쓸 때, 대부분 '市'(저자 시)자를 '市'(슬갑 불)자로 쓰는 것을 보면 앞에서 지적한 대로 매일의 신문에서 잘못된 자형을 익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각 신문사에서 쓰는 활자의 자형에 대해서 그 때 그 때 적당히 쓸 것이 아니라, 미리 충분한 고증을 하여 정확한 활자체를 갖추어 놓고 써야 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오늘날 각 신문사에서 쓰는 활자체를 살펴보면, 표준 자형을 정하여 놓고 쓰는 것이 아니라, 동일 신문에서도 서로 틀린 자형을 쓰고 있을 정도로, 이 방면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한 실정이다.

신문에서 쓰는 활자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여, 전국의 각 신문사가 하루 속히 협의하여 정확한 표준 활자체를 정하여 쓰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Ⅳ. 신문은 구시대의 한문투를 개선해야 한다.

오늘날 신문의 역할은 과거와 달리 전국민을 대상으로 매일의 문화생활의 매개체로서 구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보도의 구실만 할 것이 아니라, 계도의 구실도 겸해야 한다. 그러므로 신문의 보수성은 이 사회 문화 발전의 지연(遲延)을 의미한다.

오늘날 각 신문을 과거와 비교하여 보면, 체제면에 있어서 크게 달라졌다고는 할 수 없으나, 신문 면수의 대폭 증가라든지, 문화면의 가로쓰기라든지, 구어체의 문체라든지 등등 적지 않은 변화와 발전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신문에서 반 세기 동안 낡은 투의 한문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기

현상이 있다. 30여 면이나 되는 각 신문 광고란을 살펴보면 거의 한자가 쓰이지 않고 있는데, 유독 부고란(訃告欄)만은 한자 사용이 아니라, 구투의 한문체로 보도하고 있음은 시대에도 맞지 않는 일이다. 또한 그 글의 뜻을 아는 사람도 극히 한정될 것이니, 신문에 광고하는 본래 의미도 상실하지 않을 수 없다.

신문에 게재된 부고문의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吉洙王大人 大丘徐公(鐘善)以宿患. 一九九一年 四月 十八日 午後二時於自宅別世 玆以告訃."

근래에 와서는 한문체도 아니고, 국문체도 아닌 기형적인 부고문이 나오고 있다.

"當社 代表理事 會長 李廷起 一九九五年十月二日 老患으로 別世 玆以告訃."

이러한 부고문은 당사자들이 원고를 만들어 오기 때문에 신문사로서는 부득하겠지만, 하루속히 현대적 감각에 맞는 모범 문투를 만들어 계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부고문은 일반 광고문과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지적하여 "지금 남조선신문 같은 것을 보면 영어나 일본말을 섞어 쓰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한자말은 중국 사람들도 쓰지 않는 것까지 망탕 쓰고 있습니다. 사실 남조선에서 쓰고 있는 말에서 한자말과 일본말, 영어를 빼 버리면 우리말은 '을', '를'과 같은 토만 남는 형편입니다."(북한 사회과학출판사 : 문화어학습, 1969, 3호 PP.11~12) 라고 하였다.

이것은 과거 김일성이 순수히 국어생활 자체의 결함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과장하여 지적한 것이지만, 그동안 우리 스스로 국어를 갈고 닦는 연구와 노력이 부족했던 점은 시인하고 반성해야 한다.

더구나 부고문에서 살아 있는 남의 부인을 우인대표나 호상자가 '미망인(未亡人)'이라고 쓰는 것은 참으로 망발이 아닐 수 없다.

시대감각과 현대 어문생활에 맞도록 '부고문'의 새로운 형식을 참고로 제시한다.

訃 告(부고)

○○○公(氏)께서 宿患(老患)으로
1995년 10월 2일 오전 10시, 자택(○○병원)에서 別世하셨습니다.
發靷日時 :

發靷場所 :
葬　　地 :

夫人　○○○
長子　○○○
子婦　○○○
次女　○○○

友人代表　○○○
護　　喪　○○○

連絡處 :

종래의 부고문에서 써온 '○○大人' 또는 '○○王大人'의 칭호와 본관 등은 굳이 쓸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嗣子(사자)'라는 말도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앞에서 지적한 '未亡人'과 마찬가지로 시대에 부적한 말이므로 쓰지 않는 것이 좋다.

V. 신문에서 한자 사용의 새로운 방향 모색

우리 나라 약 1세기간의 신문 약사(略史)를 살펴보면, 1883년 10월에 순 한문으로 한성순보(漢城旬報)'가 창간되었고, 1886년부터는 '한성주보(漢城週報)'로서 국한문혼용체로 발간되었으며, 1896년 4월에는 최초의 민간신문으로서 순 한글과 영문판의 '독립신문'이 창간되었고, 1898년에 역시 한글신문의 '제국신문'이 창간되었으나, 일제침략후 항일기(抗日期)인 1920년 3월에 '朝鮮日報'와 1920년 4월에 '東亞日報', 1924년 3월에 '時代日報'가 국한문으로 발간되면서 오늘날까지 그 체제를 지켜 오고 있는 것이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성을 강조하던 신문화기에 일시 순 한글 신문이 발행되기는 하였지만, 대부분의 신문이 지금까지 '국한문혼용'의 체제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68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한글 전용 정책에 의하여 초등학교 과정에서는 한자 교육을 하지 않고, 중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인하여 한자 교육이 소홀해지자, 일상생활에서 한자의 활용이 부진하게 되었다.

근래에 와서는 대학생들까지도 교재를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한자 실력이 수준 이하로 저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학생들은 한자가 혼용되어 있는 신문을 기피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부응하여 다시 순 한글판의 '한겨레신문'이 나오고, 스포츠신문도 한글 전용화하고, 대부분의 일간신문도 문화면에서는 한글 전용화되고 있으며, 정치·사회면도 기사내용에서는 거의 인명만을 한자로 쓰는 경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하여 이른바 '국한문혼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문화 발전의 퇴조를 우려하여 심히 개탄하고 있는 반면,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이들은 이것이 한글전용의 자연적인 순리라고 쾌재를 부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본래 목적하는 '한글전용'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천만 오해이다.

한자에 대한 무지의 소치로 '국한문혼용'의 신문을 기피하고, 신문사에서는 이러한 독자를 하나라도 더 잡기 위하여 '한글전용'의 신문으로 상업성을 추구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 국민이면 누구도 바람직한 결과라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한글전용'을 주장하는 이들도 우리 나라에서 한자와 한문이 절대로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처럼 공산주의의 일관된 문자개혁 정책에 의하여 한글전용을 단행하였다가 현실적인 불편에 어찌할 수 없어서 1968년부터 한자 교육을 다시 실시한 전철을 밟지 말고, 생활에 필요한 정도의 한자 습득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각 일간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한자를 활용하는 신문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교육용 기초 한자 1,800자를 포함하여 신문에서 필요한 한자를 선정하여 그 범위내에서 최대한 활용한다.

(2) 활자체의 표준자형을 통일하고, 기타 이체자를 쓰지 않도록 한다. 약자도 필요한 정도에서 표준자형을 정하여 활용한다.

(3) 우리말의 시각 어휘 중에서도 한자 사용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놓고, 한자를 활용하도록 한다.

(4) 한자를 활용할 때에도 괄호 안에 음을 표기하여 독자들의 편의를 도모함과 아울러 한자 습득의 편익도 돕는다.

(5) 표제나 부제에는 신문의 미관상 자음을 달기 어려우면, 신문기사 중 동

어휘에서 괄호 안에 한자의 음을 표기하여 한자로 된 제목도 읽을 수 있도록 한다.

(6) 한자 학습란을 매일 게재하여 전 국민으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신문에 활용하는 한자를 익히도록 한다.

(7) 각 신문에서 한자 학습을 위한 퀴즈난을 마련하여 젊은이들로 하여금 관심을 가지고 활용하는 신문이 되도록 한다.

(8) 이 기회에 부언할 것은 각 신문은 가로쓰기를 단행하여, 어려서부터 학교 교육에서 가로쓰기에 습관이 된 젊은이들로 하여금 좀더 친근해 질 수 있는 신문이 되도록 한다.(진태하 : "日刊新聞의 가로쓰기를 촉구함", 국어교육월보, 1988. 1.1 참고)

그러나 끝으로 강조할 것은, 현재와 같이 기사 내용에서 인명 정도만을 한자로 쓰는 '국한문혼용'의 신문이라면 하루속히 '한글전용'의 신문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 이유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1) 최근 신문을 보면, 기사 내용에서 거의 성명자만 한자로 쓰여 있어서, 마치 흰 쌀밥에 검은 콩이 드문 드문 박힌 것 같아 신문의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고, 성명자만 한자로 쓰는 일은 독자들에게 별로 필요한 일이 아니다.

(2) 표제나 부제에서 신문의 판짜기를 위하여 쓰는 한자는 독자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

(3) 현재와 같은 신문의 태도로는 적극적인 한자 교육의 회복을 도모할 수 없다.

(4) 현재와 같이 한자로 써야 할 시각적 어휘는 한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써도 좋은 것은 오히려 신문 체제상 한자로 짜맞춘다면, 즉시 '한글전용'의 신문으로 전환하는 편이 독자를 위하여 좋다.

(5) 현재와 같이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려는 '국한문혼용체'의 신문이라면, 조속히 한글전용하여 전국민이 읽기라도 할 수 있는 신문으로 만드는 것이 낫다.

결론적으로 각 신문사는 현실의 심각한 문제를 직시하여 조속히 확실한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현실정으로는 '한글전용'과 '국한문혼용'의 문자 정책에 대해서는 위정당국의 누구도 명쾌한 단안을 내릴 수 없는

난제 중의 난제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국가 백년대계를 위하여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 객관적이고도 과학적인 근거하에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단호한 정책을 추진할 애국자가 필요한데, 자리지킴에 연연한 위정당국자들에게는 절대로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지금 현재로서는 전국의 언론이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국익과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대할 수 밖에 없다.